

2008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성명

수험번호 2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연을 듣고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예도보통지』는 어떤 책인가?
 ○ 무예의 실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통괄하여 글과 그림으로 설명함.①

『무예도보통지』의 제작 과정은?
 ○ 국왕의 명령으로 무예를 발간하고 엄격한 결과를 편찬함.②
 ○ 백동수가 발간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제가, 이덕무가 완성함.③

『무예도보통지』는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 이론과 실체가 결합된 세계적으로 유일한 무예종합서임.④
 ○ 한국·중국·일본의 우수한 무예를 엄선하여 정리함.⑤

2 (물음) 좌담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실천 방안
- ② 이주여성의 자녀교육 실태 및 개선책
- ③ 한국어 교사의 자질 확보를 위한 대책
- ④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개선 방안
- ⑤ 이주여성의 생활 적응 능력 제고를 위한 대책

3 (물음) 발표를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식의 변질을 막기 위해 마늘을 이용할 수도 있겠어.
- ② 멀미가 심한 사람이 생강차를 마시면 증상이 완화되겠군.
- ③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겠군.
- ④ 닭고기와 생선 요리를 할 때는 생강을 사용하는 게 좋을 거야.
- 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위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군.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남자의 발언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주치의 제도가 시행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② 주치의 제도는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효율적이다.
- ③ 의사는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유명 병원과 종합 병원의 의사도 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⑤ 주치의를 환자와 전문 병원, 종합 병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5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제와 관련되어 있는 각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 ② 화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③ 화제와 관련된 다른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 ④ 남자의 발언을 다른 관점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있다.
- ⑤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 6 경찰청 홈페이지에 '육교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쓰고자 한다. 글쓰기 계획에 대한 구체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자 분석】 ○ 경찰청은 교통량이나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주민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육교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 문제를 결정한다.
【전략 수립】 ○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보행자 우선의 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인다. ○ 구체적인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설득력을 높인다. ①
【자료 수집】 ○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한 지역의 비율을 조사한 통계 자료를 수집한다. ② ○ 횡단보도를 설치한 지역의 교통 체증 변화와 교통사고 발생 빈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한다. ③ ○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수집한다.
【내용 선정】 ○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한 지역이 늘고 있지만 교통 체증이나 교통사고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④ ○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 것이 지역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제시한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확대, 차량의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 ⑤ ○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속히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 7 <보기>를 바탕으로 '고전 읽기'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우리 조상들은 쪽빛을 천에 물들이기 위해 쪽이라는 식물을 사용했다. 그런데 쪽에서 바로 쪽빛을 얻을 수는 없다. 쪽빛을 얻기 위해서는 장인의 마음가짐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갯물에 쪽과 석회를 넣은 후 화학적 변화와 미생물의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쪽으로 물들인 천은 빛깔이 곱고 오랫동안 탈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오늘날에는 빠른 시간 내에 쪽빛을 내기 위해 값싼 화학 염료를 사용하지만, 쪽빛 본래의 빛깔을 온전히 살릴 수는 없다.
--

- ① 고전을 요약한 책에서 참다운 삶의 지혜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② 고전 읽기를 통해 얻은 지혜는 특별한 가치가 있으며,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③ 요즘 사람들은 번거롭고 힘들다는 이유로 고전에서 지혜를 얻기를 기피한다.
 ④ 좋은 책을 선택하기 위해 책을 보는 안목이 높은 사람의 도움을 얻는 지혜도 필요하다.
 ⑤ 고전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독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며, 숙고와 체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8 '지진 피해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논지 전개 방향에 따른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ㄱ.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ㄴ.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 지역에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ㄷ. 지질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위험할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여러 요인을 가지고 있다. ㄹ.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진 관측망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부족하고 분석 기술 역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ㅁ. 지진은 건축물에 3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지진의 힘을 견딜 뿐 아니라 그 힘을 전달받지 않도록 건축물을 설계하고 있다. ㅂ.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60%, 교량 및 터널의 27%가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강진이 일어나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

지진 피해의 심각성	ㄴ을 활용하여 강진 발생 시 입게 될 처참한 피해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①
지진 피해 대비의 필요성	ㄱ, ㄷ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지진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지진 피해 대비 실패	ㄹ, ㅂ을 활용하여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③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	ㄹ, ㅁ을 활용하여 지진 발생 시 주변국과 협조를 하고 건축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④
실천 촉구	ㄱ을 활용하여 논지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개선 방안이 조속히 실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⑤

- 9 다음은 '온라인 상담실'의 '열린 상담 코너' 화면의 일부이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한 댓글은?

온라인 상담실
주소(0) http://www.OOO.go.kr

공지사항 열린 상담 자료실 검색

제목
학교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용
사람들은 제 성격이 너무 차고 쌀쌀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저는 친한 친구가 없어요. 친구들과끼리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만 합니다. 저도 다른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댓글

- < 보 기 >
- 고민에 대한 공감을 표시할 것.
 - 문맥에 맞는 관용적 표현을 활용할 것.
 -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

- ① 세상에 나쁜 성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 개인의 성격에는 다 조물주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학생이 처한 상황에 너무 피로워하지 말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 ② 그동안 참 힘들었겠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주변의 학생들에게 다가가 보세요.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 ③ 학생의 고민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는군요. 친구는 평생의 재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커다란 행복입니다.
- ④ 학생이 먼저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 보세요. 주변의 친구 중에도 분명 학생과 같은 고민으로 마음을 썩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먼저 친구가 되어 주세요.
- ⑤ 그동안 정말 외로웠겠네요. 아무리 발이 넓은 사람이라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좋은 친구가 생길 거예요.

- 10 문맥을 고려할 때, () 안의 말이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점]

- ① 혹시 모르니 전화번호를 알아 (두다/놓다).
- ② 잠깐 사이에 물건을 다 팔아 (버리다/치우다).
- ③ 하루 종일 혼자서 정신없이 떠돌어 (대다/쌓다).
- ④ 지금 시간이라면 그가 이미 와 있을 (법하다/만하다).
- ⑤ 소중하게 다루는 것을 보니 귀한 물건인 (적하다/양하다).

- 11 <보기>에 근거할 때, 제시된 용례들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부사어의 역할
 - 서술어, 관형어, 다른 부사어 수식
 - 문장과 문장을 연결
 - 부사어의 종류
 - 서술어에 따라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와 그렇지 않은 '수의적 부사어'
 - 문장 속의 특정한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어'

- ㄱ. 확실히 삼계탕은 기운을 돋우는 데 매우 좋은 음식이다.
ㄴ. 나는 삼계탕을 매우 자주 먹는다.
ㄷ. 오늘 먹은 삼계탕은 예전 것과 아주 다르다.

- ① ㄱ의 '매우'는 관형어를, ㄴ의 '매우'는 다른 부사어를 수식한다.
- ② ㄱ의 '매우'와 ㄴ의 '매우'는 모두 수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 ③ ㄱ의 '확실히'는 문장 부사어, ㄷ의 '아주'는 성분 부사어에 해당한다.
- ④ ㄱ의 '확실히'와 ㄷ의 '아주'는 모두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 ⑤ ㄴ과 ㄷ의 두 문장은 '그런데'와 같은 부사어로 연결할 수 있다.

- 12 <보기>의 ㉠~㉣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공부방을 가리키는 이름 중에는 '서책' 외에도 '책 등지'가 있다. 책 등지는 등지에 들어앉은 새처럼 작은 방에 웅크리고 앉아 책을 읽는 기분이 절로 들게 만드는 포근하고 호젓한 느낌의 이름이다. ㉠ 공부방을 이르는 말에는 '서재'나 '서방'과 같은 것도 있다.
- '책 등지'가 반드시 공부방에만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큰 서점에 가면 구석구석에 앉아 책에 ㉡ 정신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 ㉢ 그러나 가정에는 책상 아래, 의자 아래, 소파 ㉣ 뒤편의 작은 틈 속에 들어가 쏙그리고 앉아 책을 읽는 어린이들도 있다. 비록 작은 ㉤ 공간에서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책 등지를 틀고 있다.

- ① ㉠ : 글의 흐름상 어색하므로, 첫 문장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어.
- ② ㉡ : 어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신을 차리는'으로 바꿔야겠어.
- ③ ㉢ :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또'로 바꿔야겠어.
- ④ ㉣ :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뒤쪽'으로 바꿔야겠어.
- ⑤ ㉤ : '비록'과의 호응을 고려하여 '공간일지라도'로 바꿔야겠어.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미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뉜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쫓아버린다

㉠ 차디찬 밤이다

언제인가 새끼거미 쫓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쫓아 문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련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길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 -

(나) 봄밤에도 귀뚜라리가 우는 것일까.

봄밤, 그러나 우리 집 부엌에선
귀뚜라기처럼 우는 벌레가 있다.

너무 일찍 왔거나 너무 늦게 왔거나
아무튼 제철은 아닌데도 스스로없이
목청껏 우는 벌레.

생명은 누구도 어찌지 못한다.
그저 열심히 열심히 울고
또 열심히 열심히 사는 당당한 궁지,

아아 하늘 같다.

하늘의 뜻이다.

㉡ 봄밤 자정에 하늘까지 울린다.

귀를 기울여라.
태고의 원시림을 마구 흔드는
메아리 쟁쟁,

메아리 쟁쟁
서울 도심의 숲 솟은 고층가
그것은 원시에서 현대까지를

열심히 당당하게 혼자서도 운다.
목청껏 하늘의 뜻을
아아 하늘만큼 크게 운다.

- 이형기, 「봄밤의 귀뚜라리」 -

(다) 새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자연보호를 받고 있는
늙은 소나무
시원한 그림자 드리우고
바람의 몸짓 보여주며
백여 년을 변함없이 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송진마저 말라버린 몸통을 보면
뿌리가 아플 때도 되었는데
너의 고달픈 짐작도 못하고 회원들은
시멘트로 밑동을 싸바르고
주사까지 놓으면서
그냥 서 있으라고 한다
아무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도
늙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
오래간만에 털썩 주저앉아 너도
한번 쉬고 싶을 것이다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기에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너의 줄음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백여 년 동안 뜨고 있던
푸른 눈을 감으며
끝내 서서 잠드는구나
가지마다 붉게 시드는
늙은 소나무

- 김광규, 「늙은 소나무」 -

13 <보기>에 근거하여 (가)~(다)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를 시인의 독백으로 본다면 작품 속 화자는 곧 시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인은 외부의 대상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기를 하기도 한다. 시인은 그 대상에 자신을 투영할 수도 있고, 대상을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노래하기도 하고, 삶의 본질을 통찰하기도 하며, 자신을 둘러싼 시대와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한다.

- ① (가)에서는 대상에 자신을 투영하여 시인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다)에서 시인은 대상을 통해 시대와 현실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 (나)에서 시인은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하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④ (나), (다)에서는 대상이 성찰의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자연물이라는 대상을 통해 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1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미가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 ② 화자의 행위와 화자의 정서가 교차하면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 ③ 거미가 오는 상황과 그것을 ‘문밖으로’ 버리는 화자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 ④ ‘거미새끼’나 ‘큰 거미’와는 달리 ‘무척 작은 새끼거미’에 대한 묘사는 세밀하다.
- ⑤ 화자의 정서는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메이는 듯하다’, ‘슬퍼한다’ 등으로 변주되고 있다.

15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구의 짝을 (다)에서 찾으려면?

- < 보 기 > —
- 두 시구의 전체적 의미는 서로 유사하다.
 - 한 시구에 있는 특정 시어가 다른 시구에 있는 특정 시어와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 ① ‘시원한 그림자 드리우고’와 ‘바람의 몸짓 보여주며’
- ② ‘송진마저 말라버린 몸통’과 ‘너의 고달픈’
- ③ ‘밀동을 싸바르고’와 ‘주사까지 놓으면서’
- ④ ‘털색 주저앉아’와 ‘쉬고 싶을 것이다’
- ⑤ ‘푸른 눈을 감으며’와 ‘가지마다 붉게 시드는’

16 ㉠과 ㉡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밤’과 ‘문밖’은 ‘차디찬’ 감각적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어.
- ② ㉠에서 ‘차디찬’이라는 감각적 이미지는 거미들이 헤어져 있는 상황의 비극성과 잘 어울려.
- ③ ㉡의 ‘봄밤’이라는 계절적 배경 때문에 ‘귀뚜라미’가 아니라 ‘귀뚜라미처럼’ 우는 벌레라고 한 것 같아.
- ④ ㉡에서 ‘자정’은 ‘하늘까지’와 결합하여 울음소리의 강렬함을 강화시키고 있어.
- ⑤ ㉡의 ‘봄’은 화자의 내적 고뇌를 드러내기 적합한 계절적 배경으로 보여.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뉴욕 증시는 1929년 대공황 이래 여러 차례의 주가 대폭락이 있었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 이론에서 보자면 이러한 주가 대폭락은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유 경쟁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최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늘 정확히 일치하여 항상 안정된 균형 상태에 놓여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는 늘 불안정하며, 수요와 공급은 그 실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뿐더러, 시장은 불균형 속에 항상 혼잡하 기간 하다. 작은 정치적 사건에도 주식 시장은 흔들린다. 하지만 기존의 주류 경제학은 불행히도 현실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균형,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경제 패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

20세기 후반, 복잡한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던 학자들은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그 결과 ‘복잡계 경제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복잡계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개인들을 불합리한 존재로 파악한다. 그리고 각 개인과 사회의 불합리성과 혼잡함,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작고 불규칙한 패턴들과 불확실성에 주목한다. 그들은 시장을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룬 안정된 균형 상태에 놓인 시스템으로 보지 않는다. 환율이나 금리, 물가, 주가 지수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 또한 그 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기존의 주류 경제학을 비판한다.

복잡계 경제학은 아직 체계적인 패러다임을 갖추진 못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파머 박사의 모델은 그것들 중의 하나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들의 거래 전략들의 집합체이다. 그런데 그 전략들은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한다. 유한한 정보를 가진 개별 투자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여 거래를 한다. 이러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거래 전략들은 상호 작용으로 ㉡ 요동치고 복잡한 양상으로 충돌하면서 작지만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패턴을 이용한 거래 행위가 생겨나게 되고, 곧이어 그 패턴은 소멸한다. 왜냐하면 이익을 보기 위해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그 패턴을 고려한 투자자들의 행위 자체가 패턴에 영향을 주는 순간 그 패턴에 따른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새로운 패턴을 찾아 나서게 된다. 투자 기법의 핵심은 이렇게 시장에 잠깐 나타나는 ‘미시적 패턴의 이익 기회’를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복잡계 경제학을 과학적 학문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복잡계 경제학이 아무것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하지만 천문 학자들이 별의 생성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연구가 비과학적이라고 하지는 않듯이, 현실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복잡계 경제학을 ‘과학’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17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복잡계 경제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 ② 기존의 주류 경제학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 ③ 복잡계 경제학에서 제안하는 모델들의 유형 비교
- ④ 복잡계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현실 경제의 양상
- ⑤ 현대 주류 경제학에서 복잡계 경제학을 바라보는 시각

18 위 글 전체의 논지 전개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두 주장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② 사례의 비교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입장의 두 이론을 절충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가설을 설정하여 현상을 분석하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19 ㉠에 따라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김 씨는 A기업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가, A기업의 주가가 1,000원에 이르면 당분간 떨어지는 추이를 보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가가 1,000원에 이르자 즉시 팔았다. 그리고 바로 B기업의 주식을 주당 500원에 샀는데, 그동안 B기업의 주식이 500원까지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상당 기간 오르는 추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씨가 주식을 거래한 이후, A기업의 주식은 1,500원으로 올랐고, B기업의 주식은 100원으로 떨어졌다.

- ① 김 씨가 앞으로 B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에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겠군.
- ② 김 씨가 A기업의 주식을 판 것은 기존의 주가 변동 패턴을 고려한 전략이군.
- ③ 주식 가격 변화가 적은 B기업의 주가는 비교적 변동이 적으므로 패턴을 형성하기 어렵겠군.
- ④ A기업의 주식을 1,000원에 사서 이익을 본 사람은 김 씨와는 다른 전략으로 투자에 임했겠군.
- ⑤ A기업의 주가가 1,5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보아 A기업의 주가에는 새로운 패턴이 등장했을 수 있겠군.

20 ㉡에서 ‘요동치다’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바빠서 달라지다.
- ② 움직여 자리를 바꾸다.
- ③ 서로 뒤섞이어 하나가 되다.
- ④ 이리저리 자주 옮겨 다니다.
- ⑤ 심하게 흔들리거나 움직이다.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의사선생님을 한 번 더 모셔 올까요?”

고모의 눈치를 보며 아내가 말했다.

“내 참말로 이런 말이사 안 할라 했지마는 성가(언니)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밀튼 곱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사람이 이래 죽어 가는 걸 한지붕 밑에서 보면서도 우째 낮작 한 분 안 비칠꼬.”

고모가 아내의 말이 시답다는 듯 어머니를 두고 험담을 하며 뽀드득 이빨을 갈았다.

“늙으신 분들은 꼭 자신이 조만간 당할 일 같아 임종을 잘 안 지키시려 합디다. 고모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머니가 이 방에 계셨더랬어요.”

아내가 말했다. 고모나 아내의 말은 이미 할머니의 임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도 그렇지. 울산서 집 팔아 아들네 집에 왔으모, 아들 앞으로 집이사 때가 일러 몬 사준다 캐도 이럴 때 돈 좀 풀어 놓으모 안 되나. 너거나 우리사 입치레도 힘드니 내 아무 말 안 하지만. 성가 하는 짓은 중말 패썸도 하다. 어데 두고 보자. 관 속에 그 돈 가주고 가는 꼴을.”

열린 방문을 통해 마루를 내다보며 고모가 멍게 말했다.

어머니와 할머니, 그 고부간의 사이란 옛말에도 싸움이 잘 날 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두 분 평생 무슨 살이 긴 듯했다. 어머니가 시집을 갔 왔을 때나 아버지가 집에 불어 있었을 때는 당사자들보다 이웃 눈도 있었으니 물론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놀려 지냈음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서 육이오 동란 뒤부터 어머니는 할머니와 완전히 갈라서고 말았다. 육이오 뒤부터 할머니의 우리집 출입은 마지못한 나들이 정도가 고작이었고, 내가 모시기 전까지는 줄창 외손자들을 키우며 호계 고모네 집에서 사셨다. 우선 신체적 조건부터가 어머니와 할머니는 판이했다. 할머니는 여자 중에서도 작고 왜소한 체구였고, 어머니는 여장부답게 몸집이 컸다. 성격 또한 할머니가 꼼꼼하고 찬찬하며 어떤 면에서는 게으른 편이라면 어머니는 드세고 팔팔하고 남달리 부지런했다. 할머니는 점심 식사 뒤 꼭 한 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나는 어머니가 여태껏 앉은 자리에서라도 낮에 눈을 붙이는 걸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는 음식 솜씨가 없어 어머니 말처럼 오징어젓이나 잘 담그고 초장이나 맛을 낼 줄 알까, 나물 하나 제대로 무치지를 못했고, 손이 잘아 밥을 하면 딱 알맞거나 조금 모자라기가 십상이었다. ㉠ [“원래 본 비가 없고 배운 바 없이 청상과부 아래 뽀물로 자랐다 보니까 시집와서 끼니때마다 밥 하라고 썰을 떠내 줄 때는 바가지 한 분 사용하는 법이 없었니라. 독 그 조막만한 손으로 썰을 떠내 주니 내사 노상 누른밥을, 그것도 반 그릇이 못 되게 묵었지려. 낮이모 그 험한 논일 밭일에 밤이모 벼들 앞에 앉아, 말만 듣던 시집살이가 오죽이나 했겠나. 거게다가 니 애비는 그노무 빨갱이 공부를 하느니 기집질을 하느니 울산이다, 경주다, 부산이다, 외지 출입을 장구경 기듯 나뉘겨 한 해모 반 년은 집을 비웠을 기라. 그러니 너를 뺐을 때는 이 큰 뱃기죽이 시래기맨꾸로 주름져 그저 자나 깨나 묵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래서 철 따라 감자나 고구마나 덕치는 대로 시에미 몰래 삶어 묵었지려. 그러모 니 할매는, 말 같은 여편네가 손이 커서 소도 잡아먹을 상편이니 실림 망칠 기라고 동네방네 재잘거리고 다니제…….”] 어머니가 자주 읊으시는 시집살이의 녀두리였다.

창문과 방문이 열려 있기에 나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담배를 태우며 할머니 얼굴을 보니 눈꺼풀이 잘게 떨리고 있었다. 호흡은 가빠 납작한 가슴팍이 가볍게 오르내렸다. 할머니가 사용하는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다 보니 ㉠ 필터가 반쯤 타들어간 콩초가 열 개쯤 되었다. 그것이 마치 할머니의 이빨이나 화장(火葬) 뒤 바스라진 뺨조각 같았다.

낮잠을 주무셔서 그런지 할머니는 밤잠이 별로 없으신 편이었다. 새벽 두세 시쯤 어찌다 변소라도 가기 위해 마루로 나오면 부엌방에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었다. 무심코 문을 열고 보면 할머니는 마치 늙은 여우가 호호백발로 둔갑한 듯 눈을 빠르게 뜨고 오두마니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무슨 생각이 깊으신지 할머니는 꼭 심야에 한두 차례 일어나 앉아 담배를 태우며 일일십 분을 보내다 다시 잠을 청하곤 했던 것이다. 지난날의 굵이굵이 살아온 삶의 한 자락을 펼쳐 놓고 계신 것이 분명했고, 당신이 결코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지만 삼십 년이 넘도록 소식 없는 외동아들 생각을 담배 연기 속에 풀어 놓고 있으리라. 사진으로만 보았을 뿐 기억조차 없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나는 그렇게 짐작했다. 할머니가 서울로 오신 얼마 뒤 언젠가 내가 할머니께 물었던 적이 있었다. “할무이는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눈만 깜박거리실 뿐 쉬 대답을 양으셨다. 그러곤 내 질문이 심란한 듯 담배를 태워 물었다.

- 김원일, 「미망(未忘)」 -

2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 ② 아내는 완곡한 말로 고모를 진정시키고 있다.
- ③ 어머니는 여전히 할머니의 시집살이에 시달리고 있다.
- ④ ‘나’는 아버지와 함께한 유년 시절의 추억을 갖고 있지 못하다.
- ⑤ 할머니와 어머니는 ‘나’가 모시기 전까지 한동안 따로 살았다.

22 <보기>는 ㉡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는 특이하게도 서술자가 문단을 나누지 않고 다른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서술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 ① ㉡ 자체는 ‘나’의 기억의 일부이고, ㉡의 내용은 ‘어머니’의 기억입니다.
- ② 문단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가 그 앞부분의 내용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지요.
- ③ ‘어머니’의 말을 빌림으로써 서술 대상의 범위가 할머니와 아버지의 내면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 ④ ‘어머니’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 내용이 ‘어머니’의 관점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요.
- ⑤ 문단을 나누지 않고 바로 ‘어머니’의 말을 이어감으로써, ‘나’가 자연스럽게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서술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2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넉넉하고 드센 할머니의 평소 모습을 강조한다.
- ② 할머니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왔음을 알게 한다.
- ③ 죽음을 목전에 둔 할머니의 한스러운 삶을 상징한다.
- ④ ‘나’가 어머니에 대해 원망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나’가 불편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암시한다.

24 위 글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인 ‘미망(未忘)’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음’이라는 뜻이야. 이 작품의 주인공을 할머니와 어머니라고 할 때, 두 사람에게 미망의 대상은 무엇일까? 위 글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어. 그 갈등은 어떤 것들과 관련이 있을까?	어머니는 지난날의 고난스러웠던 삶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지. 할머니에게 미망의 대상은 삼십 년이 넘도록 소식 없는 외동아들이 아닐까? ①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 가령 외양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지. ②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아버지의 부재라는 상황도 있어 보여. ... ③ 고모의 말을 통해 어머니가 지닌 성격의 일면이 드러나고,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이도 드러나지. ④ 위 글에서 주변 인물인 고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	---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자가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를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지는 않는다. 도덕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무슨 음료를 마시느냐 하는 것을 놓고도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도덕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 따질 수 있는 것일까?

(나) 우선 ㉡ 도덕성 판단은 인간의 이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분명한 이성의 작용 아래에서 도덕성과 관련 있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만 도덕성 판단을 할 수 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위험하게 차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그의 행위는 비도덕적인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성 판단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심각한 정신 질환자가 저지른 폭력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이 정신 질환자의 행위를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행위가 이성의 작용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 그렇다면 행위자의 이성은 작용하고 있지만 의도성이 없을 때에는 어떠할까? 운전자의 의도성은 없지만 실제로 횡단보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인공호흡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다급한 마음에 인공호흡을 해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를 생각해 보자. 두 경우 모두 행위에 대한 의도성은 없지만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덕성 판단의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성 여부가 아니라 행위자의 이성 작용 여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 도덕성 판단을 할 때 이성의 작용 외에 인간의 자유의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성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의지에 의하지 않고 외부의 심각한 강요나 협박에 의한 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는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운전자가 이성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그것이 타인에 의해 자유의지가 박탈된 경우라면 그 운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 물을 수 없다.

(마) 이와 달리 현대의 일부 심리학자들은 자유의지가 박탈된 상황을 이성의 작용과 관련짓지 않고 이른바 '동기'와 관련시켜 생각한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그 행위를 ㉥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존재하며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 인간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도덕적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동기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른 행위를 하게 만드는 동기도 존재할 것이다. 이들 동기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25 위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견해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인간의 행위 중에는 '도덕성'과 무관한 것이 있다.
- ② '도덕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다.
- ③ 인간의 행위 중에는 '자유의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 ④ '이성의 작용'과 '자유의지'는 도덕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다.
- ⑤ '이성의 작용'이라는 말은 행위가 의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6 ㉡에 따라 <보기>의 사례를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실수로 항생제의 색깔을 잘못 구별한 채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환자가 이상 반응을 보여 식물인간이 되었다.

- ① 의도성이 없었지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 ② 주의 여부에 상관없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 ③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은 아니지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 ④ 간호사의 행위는 도덕성과 무관하지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 ⑤ 이성이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27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행위는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
- ②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 ③ 인간의 자유의지는 경험적으로 습득된다.
- ④ 인간의 자유는 시대와 현실에 의해 규정된다.
- ⑤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

28 문맥상 ㉢~㉥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판단(判斷)할
- ② ㉣ : 간주(看倣)할
- ③ ㉣ : 자유(自由)로울
- ④ ㉤ : 전가(轉嫁)할
- ⑤ ㉥ : 유발(誘發)하는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높임법이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나 다른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문법 요소를 말한다. 높임법은 높이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하나는 행위의 주체(문장의 주어)를 대상으로 하는 높임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미치는 쪽(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을 대상으로 하는 높임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듣는 상대, 곧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높임법이 있다. 이를 각각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라고 한다.

(나) 주체 높임법은 주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붙어 실현되나, 부수적으로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가 쓰이기도 하고 주어 명사에 ‘-님’이 덧붙기도 한다. 객체 높임법에서는 주로 ‘모시다’, ‘드리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쓰고,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한다.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는데, 의례적인 용법의 격식체에는 높임의 등급에 따라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가 있고, 정감을 드러내는 비격식체에는 존대에 ‘해요체’가, 비존대에 ‘해체’가 있다.

(다) 위에서는 세 가지 차원의 높임법을 따로따로 서술하였지만,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이들 중 둘 또는 셋이 문장에 동시에 작용한다. 가령, 형이 동생에게 말하는 “할아버지께서 집에 다녀가셨어.”는 두 차원의 높임법이 적용된 문장인데, 여기서 ‘할아버지’는 주체로서 ‘-시-’를 적용받고, 동시에 청자인 동생은 ‘-어’를 적용받고 있다. ㉠ 높임법의 존대를 [+]로 비존대를 [-]로 나타낸다면, 이 문장은 [주체+], [상대-]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종류의 높임법을 각각 등급을 달리하여 조합하면, 많은 수의 높임 표현이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라) 그런데 높임법의 종류나 등급은 발화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조정되어 실현된다. 가령, “후배, 좀 앞게.”라는 문장에서처럼, 하계체 정도로밖에 예우 받지 못하는 인물이면, ‘-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후배님, 좀 앞으시게.”로 쓰이기도 한다. 원래의 문장에서 ‘후배’라는 호칭에 ‘-님’을 덧붙이고 주체 선어말 어미 ‘-시-’를 첨가함으로써, 화자가 청자를 더 예우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섞어 쓰거나, 해오체와 해체를 섞어 쓰는 것 등도 높임법이 발화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조정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마) 이렇듯 높임법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높임 표현을 선택할 때 상하(上下) 관계와 친소(親疎) 관계가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소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높이는 반면, 지위가 낮지 않거나 친밀한 사람은 높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높임법이 그야말로 다양한 조합과 변형을 보이는 것은 그러한 복잡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살이의 다양함만큼이나 국어 높임법도 다채롭게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29.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높임법의 개념과 종류
- ② (나): 높임법의 종류에 따른 실현 원리
- ③ (다): 실제 대화 상황에서 높임법의 실현 양상
- ④ (라): 상황에 따른 높임법의 조정
- ⑤ (마): 높임법의 체계와 의의

30. <보기>의 문장을 ㉠에 따라 바르게 나타낸 것은?

< 보 기 >

고모, 영화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탕에 갔어요.

- ① [주체+][상대+]
- ② [주체-][상대+]
- ③ [주체-][객체+][상대+]
- ④ [주체+][객체+][상대-]
- ⑤ [주체-][객체-][상대+]

31. 위 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상황에 대하여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성규는 영민의 친구이면서 직장 상사이다.

ㄱ. (동창회에서) 영민 : 언제 왔어?
성규 : 조금 전에 왔어.

ㄴ. (회사에서) 영민 : 전무님, 결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규 : 이 부장, 수고했어요.

- ① ㄱ에서 영민은 상하 관계보다 친소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군.
- ② ㄴ에서 영민은 하십시오체를 쓰면서 ‘-시-’를 쓰지 않음으로써 높임법의 등급을 조정하고 있어.
- ③ ㄴ에서 성규는 ‘-시-’를 쓰지 않았으나 ‘-요’를 씌으로써 높임법의 등급을 조정하고 있군.
- ④ ㄱ과 ㄴ은 높임법을 선택할 때 발화의 상황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군.
- ⑤ ㄱ과 ㄴ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의 복잡함 때문에 높임법이 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어.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할리우드 영화는 1917년경부터 시작되어 광범위한 혁신을 축적하며 발전해 온 영화 제작 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할리우드식 영화 제작 방식을 ‘할리우드 영화의 고전적 양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고전’이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존재했던 영화의 제작 방식이 전 세계 상업 영화의 보편적 영화 양식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이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영화감독들이 새로운 형식과 실험을 통해 영화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할 당시 미국은 영화의 상업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스튜디오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나리오, 세트, 조명, 편집 등 영화의 제작 과정을 분업화하고 대중들에게 호소력 있는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는 경비를 절감하고 흥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시스템 내에서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 배우, 제작진 등은 철저히 관리·감독되었다. 아울러 영화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극장 체인망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할리우드에는 거대한 영화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지속적으로 흥행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의 고정적 이미지를 창출하였으며 새롭고 독창적인 이야기를 창조하기보다는 이미 성공한 소설이나 이야기를 각색하여 영화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고전적 양식은 고전적 이야기 서술법을 완성해 나갔다. 이야기 구성에서 사건들은 ‘수수께끼’와 ‘수수께끼의 해결’이라는 기본 구조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주인공들이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야기 속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는 영화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어떤 모호함도 없이 끝나는, 완결되고 닫힌 결말 구조를 갖는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의 고전적 양식에서 카메라의 구도는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하며 화면은 중심 사건에 집중되어야 한다. 색채와 음악 또한 영화의 배경이나 분위기와 잘 어울려야 한다. 이러한 양식들은 관객에게 안정감과 함께 자연스러움이나 사실감을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객은 영화 제작 과정이나 편집 기술 등 영화 외적인 조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스크린 위에 창조된 허구적 세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할리우드 영화의 고전적 양식은 지금까지 상업 영화의 지배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할리우드 영화의 고전적 양식에 기반한 상업 영화는 철저히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를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 관객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조작된 스크린 속 세계에 몰입하게 만듦으로써 현실 세계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3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할리우드 영화의 고전적 양식’은 오늘날까지 상업 영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② ‘할리우드 영화의 고전적 양식’에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욕망과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 ③ 스튜디오 시스템은 흥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 시도된 제작 방식이다.
- ④ ‘할리우드 영화의 고전적 양식’에서 카메라의 구도는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
- 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에는 영화의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있었다.

33 <보기>가 ‘할리우드 영화의 고전적 양식’으로 제작된 영화의 포스터라 할 때, 위 글을 바탕으로 이 영화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 : 성공한 소설을 이야기로 각색하여 실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겠군.
- ② ㄴ : 영화 관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제작사의 전략과 관련이 있겠군.
- ③ ㄷ : 배우의 고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흥행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ㄹ : ‘수수께끼’와 ‘수수께끼의 해결’이라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겠군.
- ⑤ ㅁ : 기존의 영화와는 차별되는 제작진의 실험 정신이 잘 드러나 있겠군.

34 문맥으로 보아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객의 수용성
- ② 제작 경비의 절감
- ③ 현실의 사실적 반영
- ④ 감독, 배우, 제작진의 분업화
- ⑤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의 조화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③ 가뻘한 내 삿갓이 빈 배와 같아 浮浮我笠等虛舟
 한 번 썼다가 사십 년 평생 쓰게 되었네. 一着平生四十秋
 목동은 가벼운 삿갓 차림으로 소 먹이러 나가고 牧童輕裝隨野犢
 어부는 ㉠ 갈매기 따라 삿갓으로 본색을 나타냈지. 漁翁本色伴沙鷗
 ④ 취하면 벗어서 구경하던 꽃나무에 걸고 醉來脫掛看花樹
 흥겨우면 들고서 다락에 올라 달구경하네. 興到携登甌月樓
 ⑤ 속인들의 의관은 모두 겉치장이지만 俗子衣冠皆外飾
 하늘 가득 비바람 쳐도 나만은 걱정이 없네. 滿天風雨獨無愁

- 김병연, 「영립(詠笠)」-

(나)
 —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千辛萬苦) 들어오니
 존전(尊前)에 뵈옵는가 한출침배(汗出沾背)* 무삼 일고
 저 주인의 거동 보소 코웃음에 비웃음에
 양반도 하릴없네 동냥도 하시는고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하시는고
 [A] 밥산 노릇 하오시니 저녁 밥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보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이라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라
 —차라리 굶을진정 이 노릇 못할노다
 무삼 일 하잔 말고 신 삼기나 하오리라
 ④ 짚 한 단 주려 놓고 신날이나 꼬아 보자
 종이 노도 못 꼬거든 새끼를 어이 꼬리
 다만 한 발 채 못 꼬아 손가락이 다 부를네
 하릴없어 내어 놓고 노 꼬기나 하오리라
 긴 삼대 베어 내어 자리 노를 배워 꼬니
 한 발 꼬고 두 발 꼬니 거의 익숙 하리로다
 천수만한(千愁萬恨)** 이 내 마음 노 꼬기에 부쳤으니
 ⑤ 날이 가고 밤이 가니 어느 시절 되었는고
 오동은 엽락(葉落)하고 금풍(金風)은 소슬한데
 만산 초목은 잎마다 추경(秋景)이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 외기러기 슬피 울 제
 잠 없는 내 먼저 들고 임 생각이 새로워라

* 한출침배 : 몹시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심.

** 천수만한 : 이것저것 슬피하고 원망함.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다)
 — 6월 어느날 낙서(洛瑞)*가 밤에 나를 찾아왔다가 돌아가
 서 글을 지었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구절이 들어 있었다.
 “내가 연암(燕巖) 어르신을 찾아뵈었더니 어르신은 사흘
 을 굶으신 채 망건도 쓰지 않고 맨발로 창문마다 다리를
 툭 걸치고 누워 행랑 사람과 말을 주고받고 계셨다.”
 [B] 이른바 ‘연암’이란 나의 집이 있는 금천(金川)의 산골짜
 이름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불렀다.
 당시 나의 가족은 처가인 광릉(廣陵)에 가 묵고 있었다.

나는 몸집이 비대해 더위를 몹시 타는 데다, 초목의 기운
 이 폭폭 찢고 여름밤에 모기가 설쳐대며 눈에 개구리가 밤
 낮 쉬지 않고 울어대는 게 괴로워,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늘 서울 집으로 피서를 왔다. 서울 집은 몹시 비좁기는 하
 나 모기나 개구리, 초목의 괴로움이 없었다. 단지 여중 하
 나가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병이 나 미친 듯 울
 부짖다가 주인을 버리고 가 버려 밥 지어 줄 사람이 없었
 다. 그리하여 마침내 행랑에 밥을 부쳐 먹다 보니 자연 행
 랑 사람과 친근하게 되고 저를 또한 나를 꺼리지 않아 내
 집 하인처럼 부리게 되었다.

고요히 지내노라니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어, 때때로 시골
 에서 보내온 가족의 편지를 받으면 ‘평안’ 두 글자만 확인하
 고 말 따름이었다. 갈수록 게으름에 이골이 나 경조사도 폐하
 고, 혹 며칠씩 세수도 않고, 혹 열흘간 망건을 쓰지 아니한
 적도 있었다. 손님이 찾아오면 혹 잠자코 앉아 있었으며, 혹
 땀나무 장수나 참외 장수가 지나가면 불러다 놓고 효제충신
 (孝悌忠信)이며 예의염치(禮義廉恥)에 대해 더불어 이야기하
 며 수백 마디 말을 다정스레 나누었다. 남들은 혹 내가 하는
 짓이 우랄(迂闊)**하고 가당찮으며 지루하여 혐오할 만한 일
 이라고들 나무랐지만 그래도 나는 그만두질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제 집에서 객살이를 하고 아내가 있는데도 중처
 럼 지낸다며 놀리기도 했지만, 나는 그럴수록 더욱 느긋해져
 바야흐로 아무것도 일삼지 않는 걸 흠족히 여겼다.

* 낙서 : 조선 시대 문신인 이서구의 자(字).

** 우랄 : 실체와 거리가 멀.

- 박지원, 「수소완정하야방우기(酬素完正夏夜訪友記)」-

3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가 처한 상황의 변
화가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감정을 은폐하기 위한 화자의 과장된 행동
이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는 일상의 묘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세태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의식이 드러
나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모
습이 나타나 있다.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심리가 반전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② ㉠은 화자의 흥취를 돋우어 주고, ㉡은 화자의 비감을 고조
시켜 주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에게 그리움의 공간을 환기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에 대해 화자는 소통을 시도하고 있고, ㉡에 대해 화자는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 ⑤ ㉠에는 화자의 현재 모습이 드러나 있고, ㉡에는 화자의 과거
모습이 드러나 있다.

3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에서 화자는 모두 기대와 현실의 모순을 느끼고 있다.
- ② [A]와 [B]에서는 모두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다른 인물의 진술이 나타나 있다.
- ③ [A]에서는 화자의 행동과 의식이 묘사되어 있다.
- ④ [A]에서의 화자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힘겨워하고 있다.
- ⑤ [B]에서는 이질적인 두 공간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삿갓’은 ‘빈 배’와 연결되면서 그 속성이 드러나 있다.
- ② ㉡ : ‘벗어서’와 ‘걸고’에는 얽매이지 않고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 : ‘삿갓’과 대비되는 ‘의관’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④ ㉣ : ‘신날이나’를 통해 화자의 소망이 ‘임’이 있는 공간과 연결되고 있다.
- ⑤ ㉤ : ‘날’과 ‘밤’이라는 하루하루의 시간 변화가 ‘시절’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39.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골에서 보내온 가족의 편지’를 대하는 글쓴이의 모습에는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어.
- ② ‘경조사도 폐하고’와 ‘망건을 쓰지 아니한 적도 있었다’에서 글쓴이가 바깥출입을 한동안 그만두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떨나무 장수나 참의 장수’와 ‘효제충신과 예의염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사람을 사림에 있어서 신분에 구애되지 않는 것 같아.
- ④ ‘혐오할 만한 일이라고들 나무랐지만’으로 보아 ‘남들’은 글쓴이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군.
- ⑤ ‘더욱 느긋해져 바야흐로 아무것도 일삼지 않는 걸 흠족히 여’기는 모습을 통해 ‘어떤 이들’의 놀림에 아랑곳하지 않는 글쓴이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세기 말 당시 학자들은 염색체 속의 단백질이 유전물질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당시에는 염색체 속의 ㉠핵산은 당, 인산, 네 개의 염기로 구성된 반복 단순구조로서, 단지 염색체의 단백질을 고정시키는 물질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핵산이 단지 네 종류의 단위 블록으로 구성된 단순 구조인 반면,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전형질의 구조적·기능적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단백질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유전에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1928년 페렴균의 발병성을 연구하던 그리피스의 실험 과정에서 단백질이 유전물질이라는 믿음에 의문을 품게 하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가 실험에 사용했던 페렴균은 S형 페렴균과 R형 페렴균 두 가지였는데, S형 페렴균은 독성이 강해 치명적인 폐렴을 일으키는 반면, R형 페렴균은 독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해서 폐렴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피스는 첫 번째 실험에서 두 생쥐에 각각 S형 페렴균과 R형 페렴균을 주입했다. 그 결과 예상대로 S형 페렴균을 주입받은 생쥐는 폐렴에 걸려 죽었지만, R형 페렴균을 주입받은 생쥐는 별탈이 없었다. 그는 어느 날, 열처리를 한 S형 페렴균을 생쥐에 주입해도 생쥐가 폐렴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열처리를 하여 죽인 S형 페렴균을 살아 있는 R형 페렴균과 섞어서 쥐에 주입해 보았다. 그 [A]의 예상과 달리 생쥐들은 폐렴에 걸려 죽었다. 죽은 S형 페렴균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독성 정보가 R형 페렴균으로 옮겨가 R형 페렴균을 S형 페렴균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S형 페렴균에 열처리를 하게 되면 열에 약한 단백질은 모조리 변성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없다. 그렇다면 R형 페렴균을 S형 페렴균으로 형질 전환시킨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죽은 S형 페렴균의 ㉢어떤 물질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1944년 유전학자 에이버리는 이러한 그리피스의 실험을 기초로 한 자신들의 실험에서 S형 페렴균으로부터 추출한 DNA가 R형 페렴균을 S형 페렴균으로 형질을 전환시키고 이러한 형질이 계속 유전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에이버리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DNA가 유전물질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 ㉣단순한 구조의 DNA가 복잡한 유전적 형질을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1950년 허시와 체이스는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바이러스가 단백질이 아닌 DNA를 통해 자가 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유전물질의 정체가 결정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통설을 ㉥뒤집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왓슨은 DNA의 필수 구성 요소인 네 개의 염기가 정확한 쌍을 이루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크릭 등과 함께 DNA 분자가 이중 나선 구조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DNA가 어떻게 자가 복제하는지도 보여줌으로써 유전의 메커니즘을 알아냈다.

40. 위 글을 바탕으로 'DNA 발견의 역사'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 메모를 해보았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9세기말 - 단백질이 유전물질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시대 ①
- 그리피스 - 유전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의 발견 ②
- 에이버리 - DNA가 유전물질임을 과학계가 인정하도록 함 ③
- 1950년 - DNA가 유전물질임을 결정적으로 증명 ④
- 왓슨과 크릭 - 베일에 싸여 있던 유전의 메커니즘 밝혀냄 ⑤

41. [A]에 근거하여 <보기>의 실험을 한다고 할 때,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열처리한 S형 폐렴균 +  → 

ㄴ. 열처리한 S형 폐렴균 + 살아있는 R형 폐렴균 +  → 

ㄷ. S형 폐렴균의 DNA + 살아있는 R형 폐렴균 +  → 

※ : 산 쥐, : 죽은 쥐

- ① ㄱ에서 'S형 폐렴균'을 열처리하지 않고 실험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 ② ㄴ에서 '열처리한 S형 폐렴균' 없이 실험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 ③ ㄴ에서 '열처리한 S형 폐렴균' 대신 살아 있는 S형 폐렴균을 넣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 ④ ㄷ에서 'S형 폐렴균으로부터 추출한 DNA' 없이 실험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 ⑤ ㄷ에서 'S형 폐렴균으로부터 추출한 DNA'는 R형 폐렴균에게 독성을 전해주게 된다.

42. ㉠~㉥ 중 지시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43. <보기>를 참고할 때, '뒤-'의 쓰임이 ㉢의 '뒤-'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뒤- 「접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1)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반대로' 또는 '뒤집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① 시멘트와 모래를 뒤섞었다.
- ② 그 사건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 ③ 담쟁이덩굴이 본관 건물을 뒤덮고 있다.
- ④ 순서를 뒤바꾸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 ⑤ 끈이 기둥에 뒤엉켜 있어 풀기가 어렵다.

【44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김원은 김규와 그 부인 유씨 사이에서 둥근 원으로 태어나 10년 만에 허물을 벗고 미남자가 된다. 그 후 도원수가 되어 납치된 세 공주를 구하기 위하여 곁을 따라 지하국으로 내려가서 아귀들을 소탕하고 세 공주와 부녀자들을 구해 주지만 그의 성공을 시기한 부원수가 곁을 막아 버린다. 이 소식을 들은 셋째 공주는 김원의 집으로 가 그의 부모를 모시고 산다. 한편 김원은 곁속을 헤매다가 용자(龍子)를 구해 주고 용궁에서 용녀(龍女)와 결혼한 후 용왕으로부터 연적을 선물로 받아 인간 세계로 나온다.

원수가 하직하고 용녀를 데리고 순식간에 파도를 지나 육지에 내리니 황성까지의 거리가 만 리나 되었다. 연적을 불러 준 마 두 필을 얻어 하나씩 타고, 남자 옷을 구하여 용녀를 입히고 종원을 향하니 산천이 눈앞에서 희희 지나갔다.

날이 저물때 가게에 들어가 연적을 불러 저녁밥을 준비하여 먹으니, 가게 주인이 이 신기함을 보고 큰 보배인 줄 알아 욕심이 생겨 불량한 생각이 매우 움직였다. 가게 주인이 한밤중에 칼을 들고 원수가 잠들기를 기다려 부지불식간에 잠자리에 들어와 원수를 찔러 죽이고 용녀를 해치려 하니 용녀가 벌써 간 데 없었다.

가게 주인은 원수의 시체를 치우고 연적을 가지고 천만 가지로 즐거움을 누리다가 마침 청명절을 당하여 조상의 묘에 가 연적을 놓고 술과 안주를 구하여 제사를 지냈다. 이 때 공주는 원수의 신위(神位)를 설치하고 제사를 받들었는데, 하루는 방 안에서 난데없는 고양이 소리가 났다. 공주가 찾아보니 그 고양이의 빛이 금색이고 모양이 기이하므로 사랑하여 밥을 먹여 길렀다. 또한 청명절을 당하여 공주가 제사를 마치고 고양이를 찾으니 고양이가 간 데 없었다. 고양이가 도망하여 가게 주인이 제사 지내는 곳에 가서 연적을 물어다가 공주의 앞에 놓았다. 연적이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기이하니 심상치 않은 보배인가 하여, 공주가 연적을 가지고 대궐에 들어갔다. 천자가 보시고 신룡 기이하게 여겨 여러 신하에게 널리 알려 물었다.

간의태부 송방이 아뢰기를,

“각 읍에 공문을 보내어 찾사오면 연적 잃은 사람을 알 것이오니 차차 그 근분을 알 수 있으리이다.”

천자가 울게 여기시어 각 읍에 공문을 보냈다. ㉠가게 주인이 이 소문을 듣고 반가워서 보배를 잃은 사연을 아뢰니, 사관이 그 놈의 성명을 묻고 보배 잃은 사연을 물었다. 그 놈이 대강 속여서 아뢰었다.

사관이 말하기를,

“천자께서 이 보배의 이름과 조화를 알려 하시니 마땅히 황성에 올라가 자세히 아뢰는 것이 옳다.”

하여 함께 황성에 이르러 천자에게 아뢰었다. 그 놈을 잡아들여 국문(鞫問)하니, 가게 주인이 연적이 천만 가지 조화가 되는 연유를 아뢰었다. 천자가 크게 기뻐하여 내전에 들어가 연적을 불러 조화를 보니, 그 속에서 선녀 하나가 나왔다. 천자가 깜짝 놀라 의아하여 그 근분을 물었다.

선녀가 대답하기를,

“첩은 동해 용왕의 딸이옵니다. 대명 도원수 김원이 아귀를 소멸하고 용자를 구제하여 돌아오니, 용왕이 사위를 삼아 인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첩과 함께 왔습니다. 형주에 이르러 한밤중에 가게 주인에게 원수가 해를 보옵고, 그 놈이 첩을 탈취하려 하였사오니 첩은 여러 가지로 변신화와 지금 조화 중에 있사옵니다. 원수의 시체는 계양산에 묻혔사오니 타고

난 수명이 아직 멀었사옵니다. 시체를 찾으면 봉래산 구류선의 병에 든 물과 삼신산의 금강초가 있사오니, 그 물을 죄주고 시체를 찾아 이 약을 먹이시면 원수가 환생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오니 그대로 바빠 시험하소서.”

천자가 듣고 크게 기뻐하여 외전에 나와 여러 신하들을 모으고 가게 주인을 엄하게 벌을 준 후, 결박하여 사관으로 하여금 호송하게 하여 계양산에 가 원수의 시체를 찾아내니 시체가 썩지 않고 평상시와 같았다. 금강초를 얻고 병에 든 물을 입에 부으니 원수가 일어나 앉으며 가로되,

“어찌 구천 리 길에 이 곳에 있는고?”

사관이 전후 사연을 다 말하니, 원수가 그제야 생각하고 사관에게 연적의 입을 사레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사관이 승상을 피시고 황성에 이르니, 천자가 백관을 거느려 맞이하였다. 천자가 원수의 손을 잡고 반기며 치하하시니, 승상 부인과 공주가 기별을 듣고 기뻐서 취한 듯도 하고 미친 듯도 하며 정신이 몸에 붙어 있지를 못하여 지향 없는 사람 같았다. 공주가 부인에게 고하여 원수를 황성에 가서 뵈옵기를 청하니, 부인이 그 바쁜 마음을 헤아려 허락하였다. 공주가 소복을 벗고 채의(彩衣)를 입고 위의를 갖추고 시녀에게 당부하여 금고양이를 잘 먹여 기르라 하고 황성으로 갔다.

이때 천자가 승상 김구를 초공(楚公)으로 봉하고 김원을 부마로 정하는 뜻을 반포하였다. 그리고 예부로 하여금 택일하게 하여 김원을 좌승상 겸 동백후 부마도위로 봉하고 그 모친 유씨는 종렬 부인으로 봉하였다. 원수가 집에 돌아와 모친을 뵈오니 부인이 또한 눈물을 금하지 못하였다.

이때 금고양이가 원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변신하여 미인이 되어 승상 부부를 뵈니, 승상 부부가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지둥하며 답배하였다. 원수가 살펴보니 이는 곧 용녀였다. 크게 놀라서 묻기를,

“부인은 형주에서 이별한 후에 어찌 이곳에 계시나이까?”

용녀가 말하기를,

“그때 환난을 지낸 후 고양이로 변신하여 공주의 슬하에 의지하였삽더니, 원수가 생환하시매 이제야 본모습으로 뵈나이다.”

승상이 말하기를,

“이런 신기한 재주로 어찌 그 환난을 구하지 못하였나이까?”

용녀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한 번 겪을 운수이니 어찌 피하리이까?”

승상이 말하기를,

“우리 자식이 살아 돌아옴은 다 그대의 공이니 다른 술한 말 이야 어찌 다 하리오?”

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44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자는 용녀의 말을 듣고 김원의 시체를 찾게 하였다.
- ② 공주는 김원과 다시 만날 때까지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였다.
- ③ 승상 부인은 김원에 대한 기별을 듣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 ④ 간의대부 송방은 천자에게 연적의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었다.
- ⑤ 용녀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지만 김원이 겪어야 할 운수를 피하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19세기에 유행한 방각본 소설은 당대 독자층의 욕구를 작품에 충실히 반영하면서 소설 상품화의 길을 열었다. 이러한 방각본 소설은 정의와 이상에 대한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악과 대결하는 선의 투쟁을 기술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또한 초월적 존재의 등장, 변신 모티프, 재생담 등과 같은 환상적 요소를 가미하여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오락성을 추구했고, 또한 주인공이 행복을 추구하고 획득해가는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독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었다.

- ① 가게 주인이 연적에 욕심을 내는 것은 당시 독자들의 보편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었군.
- ② 용녀는 김원을 다시 살려낼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초월적 존재로 볼 수 있었군.
- ③ 김원이 높은 벼슬을 얻고 공주와 결혼한다는 설정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었겠군.
- ④ 김원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환상적 이야기를 통해 오락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김원이 악귀를 퇴치하는 것은 악과 대결하는 선의 투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46 '연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禍)를 부르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게도 한다.
- ② 인물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③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 ④ 유약(柔弱)한 인물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물이다.

47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결국 사관에게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있군.
- ② 제가 주인인 듯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하는군.
- ③ 앞으로 '다기망양(多岐亡羊)'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군.
- ④ '방약무인(傍若無人)'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군.
- ⑤ 기다렸다는 듯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행태를 보이는군.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요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반하는 전깃줄이 필요하다. 만일 전깃줄 없이도 전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면 전기 이용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전깃줄 없이 전기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무선 전력 전송’ 개념은 1900년 미국의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무선 전자기 유도 방식에 의한 기술은 하나의 코일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 코일 주위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 자기장 안에 있는 다른 코일에 전기가 유도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 카드가 이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교통 카드 안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 있다. 이 칩이 작동하려면 내부에 전류가 흘러야 하는데, 카드를 전원에 연결된 단말기에 갖다 대면 단말기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의해 카드에 전류가 흐르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 기술은 상당 부분 상용화되어 있다.

최근에 MIT 대학의 술야치 교수는 두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으면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공명 현상을 이용하여 무선 전력 전송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똑같은 소리굽쇠 중 하나를 때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물건은 진동하거나 울리지 않는데, 나머지 소리굽쇠가 울린다. 이것은 소리(음파)가 공기를 매개로 전달된 것이다. 술야치 교수가 활용한 기술의 핵심은 전기에너지를 보내기 위해 공기 대신 자기장을 이용하는 전자기 감응 공명 방식이다. 이를 위해 두 개의 구리 코일을 2m 간격으로 천장에 매단 다음, 이 중 한 코일에 교류 전류를 공급하면 그 코일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공명 현상에 의해 전원과 연결되지 않은 다른 코일에도 자기장이 형성되어 전기가 유도된다. 코일 사이에 벽이 있어도 전기가 유도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집 안 어디에서든 무선으로 가전 제품을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기술들이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응용한 것인 데 비해, 전자파 전송에 의한 무선 전력 전송 기술도 있다. 이 기술은 라디오나 무선 전화 등과 같은 무선 통신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데, 마이크로파와 같이 주파수가 높은 전자파는 파장이 짧아 일직선으로 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한 곳으로 전기에너지를 보내기가 쉽다. 이 기술은, 전기를 고출력 발진기를 사용해 마이크로파로 변화시킨 후 안테나를 통해 방사하면, 이를 ‘렉테나’라고 불리는 안테나를 통해 받은 후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으로 전력을 전송한다. 현재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이 기술의 유용성에 주목하여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48 위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의 기원
- ② 전기에너지의 특성과 활용 양상
- ③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전송 방법
- ④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의 개발 현황
- ⑤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의 응용 분야

49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영국의 한 회사는 무선 충전 장치인 ‘스플래시패드’를 개발했다.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된 받침대(패드)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휴대폰을 전원에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따로 충전기에 꽂지 않아도 자동으로 충전된다.
- ㄴ. 우주 태양광 발전은 우주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상으로 보내는 것으로, 우주에서 태양빛을 받아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을 전파로 변환하여 지상에 보내면, 지상에서 그것을 전기에너지로 바꿔 각 가정에 공급하게 된다.

- ① ㄱ은 전파의 직진성을 활용한 기술로 볼 수 있어.
- ② ㄱ에서 스플래시패드는 교통 카드의 단말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군.
- ③ 전자기 감응 공명 방식을 응용하면 ㄱ의 스플래시패드와 같은 받침대가 없어도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겠네.
- ④ ㄴ은 전자파 전송에 의한 무선 전력 전송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렉테나와 같은 수신 장치가 필요할 거야.

50 술야치 교수의 실험을 재현한다고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 ① 두 구리 코일 사이가 진공 상태여야 한다.
- ② 두 구리 코일의 고유 진동수가 같아야 한다.
- ③ 두 구리 코일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④ 구리 코일에 공급되는 전원의 전압은 일정해야 한다.
- ⑤ 구리 코일의 크기와 코일 사이의 거리는 비례해야 한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